

■ 語文論文

語根類 漢字語의 문법적 특성*

盧 明 姬

(江原大 人文科學研究所 專任研究員)

要約 및 抄錄

본고는 漢字語 語根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검토하여 어근으로 부를 수 있는 예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피하였다. 기존의 한자어 연구에서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격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한 예들(‘強力’, ‘國際’ 등)을 특정 명사로 보았지만, 본고는 이들이 어근의 부류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하고, 한자어에서 이러한 어근은 경우에 따라 통사적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어근류 한자어를 접미사 ‘하다’나 ‘의’와 결합이 가능한가, 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근 분리가 가능한가 등에 따라 분류하고, 부류별 특성을 파악하여 그 의존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어근류 한자어 중에서 특정 조사와의 결합을 허용하는 예들(‘未知’, ‘既存’, ‘專門’ 등)은 명사와 어근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 핵심어 : 漢字語, 語根, 統辭的 構成, 접미사, 파생어, 복합어, 의존성

I. 緒 論

한자어가 借用語로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自立性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자어 중에는 중국 文語에서 한국어로 借用되면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한자 형태소나 고유어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한국어의 문장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37-AA0006)

구성에 참여하는 예가 다수 존재한다. 우리는 이들이 의존형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語根’이라는 범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한자어 어근은 국어의 단어 형성이나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다.¹⁾

본고는 이러한 漢字語 語根 중에서 국어의 단어 형성이나 통사적 구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2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그 형태, 통사적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²⁾ 이들은 국어에서 自立的으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형식이면서 주로 ‘하다’나 ‘的’과 같은 특정 接尾辭와 결합하여 단어 형성에 참여하기도 하고, 部類에 따라 다른 명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하면서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들은 한자어가 국어에 流入되면서 國語化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로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해석된다.

한자어는 다른 외래어와 달리 단순히 어휘가 유입되어 쓰일 뿐만 아니라 한자어 문법 자체가 한국어에 유입되어 쓰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 쓰는 新語의 많은 부분을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자어의 流動的인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현 상태에서 한자어가 보여주는 형태, 통사적 특징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는 語根과 自立形式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는 예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특정한 격조사와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부분적인 自立性을 인정할 수 있는 예들이다. 본고는 순수한 한자어 어근과 이러한 예들을 포괄하여 ‘語根類 漢字語’라 부르고 이들 한자어의 문법적

1) 拙稿(1998:14~29)에서는 한자어 어근을 活性語根과 非活性語根 등으로 나누고, 이들이 국어의 단어 형성이나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 한자어 어근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본고에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주요 사항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어근이 생산적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고유어와 달리 한자어는 어근이면서도 단어 형성이나 句 구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拙稿(1998)에서는 이들을 强活性語根으로 정의하고 간략히 분류한 바 있다.

특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논의는 먼저 語根에 대한 기본 개념을 검토하여 한자어에서 어근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음절 어근들이 보이는 문법적 특성을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분류되며, 이들이 격조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어떤 제약을 보이는지 등을 검토하여 자립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순서를 따르고자 한다.

II. 語根類 漢字語의 範疇의 特性

1. 漢字語 語根의 特性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의 하나는 이들 한자어 어근의 범주적 특성이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을 과연 어근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準冠形詞quasi-adnoun, 冠形名詞, 潛在名詞 등으로 보거나 形成素 등의 용어로 정의하려는 논의가 있었다.³⁾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語根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근이라면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로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른다. 어근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規則的 語根(자유롭다)과 不規則的 語根(분명하다)으로 정의하기도 하고(고영근, 1972:539~540), 좁은 의미로 屈折接辭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이 아닌 단어의 중심부로 한정하여 쓰기도 한다(이익섭, 1975). 후자의 정의에 따르면 한자어의 많은 수가 자립형식이 아닌 어근으로 정의되는데, 이들 중에는 복합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즉 고유어 ‘거무스름하다’의 ‘거무스름’이 어근인 것과 동일하게 한자어 ‘鮮明하다’의 ‘鮮明’도 어근이 된다.

‘學校’의 구성 요소 ‘學’, ‘校’나 ‘鮮明하다’의 구성 요소 ‘鮮’, ‘明’과 그 결합형 ‘鮮明’이 모두 어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強力’이나 ‘國際’와 같은 예들을 과연 어근으로 볼 수 있

3) Martin(1992), 김영옥(1994), 김창섭(1999), 이선웅(2000), 『연세한국어사전』(1998) 등 참조.

느냐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력 드라이브, 강력 대처하다, 국제 관계, 국제 사회’와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統辭的 構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들이 격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고(*強力이, *強力을, *强力的, *强力과), 관형 성분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서브의 强力), ‘이다’와 결합할 수 없다(*强力이다, *國際이다)는 점을 중시하여 아직은 어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의 용법이 확대되어 특정 品詞로 발달해 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명사나 관형사, 기타 다른 범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어근으로 본다면 이제까지 단어 형성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어근이 句 구성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는 ‘强力 드라이브’나 ‘强力 대처하다’ 등의 구성이 ‘强力(한) 드라이브’나 ‘强力(히/하게) 대처하다’ 등과 같은 ‘하다’ 결합형에서 ‘하다’가 생략된 것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拙稿, 1998:19). ‘强力’이라는 명사적 성격의 어근이 ‘강력하다’라는 형용사에서 일종의 逆形成back formation과⁴⁾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⁵⁾ 즉 이러한 ‘하다’ 탈락형은 최근 新聞 등의 표제어로 많이 쓰이면서 확대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어근이 경우에 따라 ‘하다’가 탈락되어 쓰이기도 하고, 탈락될 수 없는 예도 있어 이들의 용법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强力’의 예를 들어보자.

(1) ㄱ. 감독은 그 문제에 대해 强力한 태도를 취했다.

ㄴ. 감독은 그 문제에 대해 *强力 태도를 취했다.

4) Bauer(1983:230~232)에서는 逆形成을 어떤 단어에서 접사 등을 탈락시켜 새로운 語彙素lexeme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예:transcription → transcript), 切斷clipping의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다.

5) 고신숙(1987:23~25)에서는 우리와 반대 과정을 想定하고 있다. 즉 ‘부지런, 고요, 부산’ 등의 고유어뿐만 아니라 ‘充實, 誠實, 勇敢, 明瞭’ 등의 한자어는 명사로서 자립적 단어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다 格變化 체계가 퇴화되면서 ‘어근적 단어’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채현식(2001)에서도 ‘어근적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強力’이 名詞라면 이들이 순수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게 되므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N_1+N_2 의 결합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다’가 탈락된 ‘強力’의 용법은 후행 명사에 대한 제약이 많아 특정한 구성 내부에서만 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우리는 ‘強力’이 아직은 ‘強力하다’의 어근으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다음 예에서처럼 ‘하다’나 ‘的’ 생략형이 신문 등에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예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 어근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ㄱ. 노인 실직 ²本格 사회문제화 (중앙일보, 2002. 3. 2)
 ㄴ. 알몸 응원, ²獵奇 응원 (서울경제신문, 2002. 6. 7)
 ㄷ. ²愼重 처리(하다), ²激烈 투쟁(하다), ²健全 소비
 ㄹ. ²新鮮 식품, *²新鮮 생선, *²新鮮 야채

(2)와 같은 예들이 어색한 이유는 이들이 아직 어근으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정한 문맥이 아니라면 (2ㄱ, ㄴ, ㄷ)은 ‘本格的으로 사회문제화하다, 獵奇的(인) 응원, 愼重하게 처리하다, 激烈하게 투쟁하다, 健全한 소비’ 등의 형태로 쓰이게 될 것이다. (2ㄹ)도 ‘新鮮 식품’ 보다는 ‘新鮮한 식품’이 자연스러우며, ‘新鮮 생선’이나 ‘新鮮 야채’ 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하다’나 ‘的’ 결합형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들을 생략해서 쓰는 용법이 아직 일반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어근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들의 지위가 流動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強力’, ‘本格’ 등의 어근이 ‘強力하다, 本格的’에서 ‘하다’나 ‘的’이 탈락하면서 逆形成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으리라는 것은 ‘本格’의 예를 통

6) 이들이 특정한 구성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일부 고유어 어근에서도 발견된다. 고유 명칭이기는 하지만 ‘튼튼 영어’에서의 ‘튼튼’도 특정한 구성에서 어근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한 예로 이해된다. 또 ‘알뜰 정보, 알뜰 구매’ 등에 쓰이는 ‘알뜰’은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고유어 어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해서 명백해진다. ‘본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품사가 ‘명사’로 정의되어 있고 부표제어로 ‘本格的’이 실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격’의 의미가 ‘본격적’의 의미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사전의 뜻을 따지면 다음과 같다.

- (3) 본격(本格) 『명』 ① 근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나 규격. ㄱ그러한 인사법은 우리 전통적인 인사법의 본격에 걸맞지 않는다. ② 본디의 격식이나 규격.

본격적(-的) 『관』 『명』 제 1권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 또는 그런 것. ㄱ본격적 자원 / 본격적 협상 // 침입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다 / 그 가수는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였다. / 회사의 자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마 대비용 상품을 파는 상점이 크게 붐비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3)의 ‘본격’에 해당하는 뜻을 보면 우리가 어근으로 쓰는 ‘본격 논의하다, 본격 거론하다’ 등의 예에 해당하는 ‘본격’의 의미가 올라 있지 않다. 어근으로서 ‘본격’의 의미는 ‘본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이라는 어근은 ‘본격적’에서 逆形成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強力’이나 ‘本格’ 등의 어근이 ‘強力한(하게), 本格的’ 등에서 ‘하다’나 ‘的’이 생략되어 쓰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어근이면서 일부 통사적 구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채현식(2001)에서는 한자어 연결 구성을 空白化와 代用이라는 機制를 통해 형성적 관점에서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선행성분이 어근인 예들 중 空白化나 代用이 가능하면 통사적 구성(零細 [농민과 상인]NP)으로, 불가능하면 형태적 구성(??簡易 [주점 및 음식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형태적 구성에 의한 예(‘簡易, 強迫, 公安, 文民, 模擬, 文教, 耐久’ 등)만 어근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고신숙(1987)과 같이 ‘어근적 단어’로 보았다. 그러나 ‘零細’나 ‘原始’와 같은 부류를 단어로, ‘簡易’와 같은 부류를 어근으로 처리할 만큼 이들이 異質의인 特性을 보이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이것이 단어라면 일정한 품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도 이들 구성을 모두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이 문제는 개별 예가 어느 정도 慣用化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이 완전한 통사적 구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들이 단어보다는 어근적인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에 緣由한다고 본다. 본고는 일단 이들이 合成語를 형성하든지 句를 형성하든지 상관없이 語根이라는 용어로 묶고 그 범주 안에서 세부적인 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고는 어근도 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假說的 입장에 선다.⁷⁾ 따라서 본고의 어근은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면서 自立的으로 쓰이지 못하여 일정한 품사를 부여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또는 부류에 따라 통사적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語根이라면 일반적으로 단어 형성의 중심 요소로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고유어 어근은 이러한 생각에 어느 정도 부합되지만 한자어 어근 중에는 생산적인 예들도 포함되며, 句 形成에 참여하는 예들도 있다. 한자어 어근이 句 構成에 참여하는 현상이 아직은 그렇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자어는 2음절일 때 어휘적 안정성을 얻으며 2음절인 한자어 명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즉 自立名詞의 수식 기능에 이끌려 2음절 한자어 어근도 이러한 수식 기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간결함을 추구하는 신문 등에서 이러한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자어 어근의 句 形成 예는 더욱 일반화되리라 추측된다. 한자어 어근의 이러한 특성은 고유어와 다른 면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2. 語根과 冠形名詞

本節에서는 우리가 어근으로 범주화한 부류를 冠形名詞나 形成素, 潛在名詞 등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⁸⁾

7) 이들 어근은 단어적 성격이 강하므로 언제든지 단어로 쓰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근과 단어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장에 따라 명사나 부사 등의 품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어근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8) 이와 이질적인 견해로는 목정수(2002)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형사와 고유

Martin(1992:150~151)에서는 2음절이나 2음절 이상인 한자어 중에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위치에만 나타나는 예를 準冠形詞quasi-adnoun로 부르고, 이들을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 부류는 ‘不朽의, 未曾有의’와 같이 조사 ‘의’와 결합한 형태, 둘째 부류는 ‘國際, 原始, 早期, 女流’와 같이 ‘의’가 없는 형태, 셋째 부류는 접미사 ‘的’ 결합형, 넷째 부류는 ‘經濟上(의) 문제’와 같은 ‘上’ 결합형이다. 본고는 이들이 모두 名詞를 수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 첫째 部類는 특정 조사와만 결합하여 제한된 환경에서만 自立性을 갖는 것으로 보아 ‘제한적 자립형식’으로 다룬 바 있다(줄고, 1998:39~41). 둘째 部類는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어근류 한자어’에 속하며, 이들은 명사 수식 기능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冠形詞로 보기 힘들다. 셋째, ‘的’ 파생어는 조사(‘으로, 이다’)와의 결합을 허용하여 명사에 가까운 準自立形式으로 보며, ‘上’ 결합형도 ‘의, 으로’ 등의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여 명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관형명사’라는 용어는 김영옥(1994)에서 사용한 용어로, 한자어 명사 중에서 관형적으로만 쓰임이 제한된 不完全系列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김영옥(1994)에서 제시한 관형명사류에는 語根 分離形(가중 처벌, 거대 자본, 과적 차량, 극렬 시위)과⁹⁾ 縮約形(가전 제품, 농공 단지, 농수산 산업), 接頭形(미전향 장기수, 반미 국가, 비공개 질문), 接尾形(공립 학교, 주립 대학) 등 네 가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는 이들 예를 名詞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기존에 없던 관형명사라는 범주를 새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한 이들 네 부류를 동일한 범주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중 接尾形은 ‘공립으로/주립으로, 공립이다/주립이다’와 같이 특정 조사와의 결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어, 한자어 어근을 포괄하여 ‘형용사’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형용사로 보는 견해는 국어 품사론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등이 따르므로 본고에서는 論外로 하고자 한다.

9) 어근 분리형은 ‘어근[+한자어]하-’ 구성에서 어근만 분리되어 관형명사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形成素’라는 용어는 『연세한국어사전』(1998)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여기서 형성소를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나 통사적 句 構成을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요소”로 정의하고, 이 형성소가 句 結合에 쓰일 때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므로 그 뜻풀이도 관형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형성소라는 용어를 어떤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품사로서 형성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어 형성의 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強力, 不穩’은 形成素로, ‘特殊, 不遇’는 名詞로 등재하고 있어 형성소라는 범주 설정의 일관된 기준도 찾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어근류 한자어를 冠形名詞나 形成素로 보는 견해의 공통점은 이들이 통사적 句 구성을 이루면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관형사적 용법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 어근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러한 관형사적 용법에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어근류 중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적 용법이 없어 句 構成을 이룰 수 없는 부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들은 語根으로 보게 되는데, 이들과 관형명사로 보는 예들을 다른 범주로 처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를 보자.

- (4) ㄱ. 賢명한 태도, 正確한 내용, 聰明한 아이, 緻密한 검토, 快適한 공간
 ㄴ. *賢明 태도, *正確 내용, *聰明 아이, *緻密 검토, *快適 공간
- (5) ㄱ. 理智의 태도, 學究의 성향, 內向의 성격
 ㄴ. *理智 태도, *學究 성향, *內向 성격

(4)의 예들은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는데, (4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다’가 생략되어서는 句 構成을 이룰 수 없는 순수한 어근이다. 즉 (4ㄱ)과 같이 ‘하다’가 결합하여야만 국어 문장 내에서 쓰일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5)의 예도 ‘的’과 같은 접미사나 다른 漢字 形態素와 결합하여야만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근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형명사나 형성소에 포함시킬 수 없는 예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어근류를 별도의 범주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김창섭(1999:16)에서는 관형명사와 ‘잠재명사’를 설정하고 (4) 부류에 속

하는 ‘便安, 汨沒’ 등의 예를 잠재명사로 보고 있다. 潛在語란 ‘독립적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오직 더 큰 복합어의 내부에만 나타나는 단어’로 문장 형성의 재료는 되지 못하고 오직 단어 형성의 재료만 될 수 있다. 이들 어근을 ‘형태론적으로 명사로서 적격하지만 독립된 명사로는 쓰이지 못하고 복합적인 단어의 구성 요소로만 쓰이는 잠재어, 그 중에서 명사’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名詞로 昇格되어 쓰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사로서의 특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을 명사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들은 단어 형성에만 참여하며 다른 명사와 통사적 구성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어근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強力, 國際’ 등과 같은 어근을 冠形名詞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 漢字語 중에는 관형사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부사적 수식 기능을 하는 예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6ㄱ)의 예들은 후행 명사에 대해 관형사적 수식 기능을 하지만, (7ㄱ)의 예들은 후행 명사에 대해 부사적 수식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예들을 일률적으로 관형명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ㄱ. 舉國, 間接, 原始, 通俗, 民主

ㄴ. 舉國 내각, 間接 공격, 原始 동물, 通俗 소설, 民主 국가

(7) ㄱ. 積極, 本格, 公式, 電擊, 一括

ㄴ. 積極 대처하다, 本格 가동하다, 公式 거부하다, 電擊 해임하다, 一括 타결하다

ㄷ. *積極 견해, *本格 사실, *公式 내용, *電擊 사실, *一括 방식

ㄹ. 積極의 견해, 本格的의 사실, 公式의 내용, 電擊의 사실, 一括의 방식

(6)의 부류는 ‘的’이 결합하지 않고도 다른 명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관형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비해 (7)의 예는 ‘的’이 생략되어서 非敘述性 명사 앞에서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을 보인다. (7ㄷ)에서 보듯이 ‘견해, 사실, 내용, 방식’과 같이 서술성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的’이 생략된 ‘적극’만으로 후행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이에 비해 (7ㄴ)의 예에서 보듯이 被修飾 명사가 서술성을 지닌 경우는 ‘的’과 결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어근이 후행 명사에 대해 부사적 수식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漢字語 語根이라도 부류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을 일률적으로 冠形名詞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어근류 한자어 중에는 補語를 가질 수 있는 예들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창섭, 1999).

(8) ㄱ. 경희대학교 附屬 (고등학교), 대통령 直屬 (기관), 문화관광부 傘下 (기관)

ㄴ. 경희대학교 附屬으로/이다, 대통령 直屬으로/이다, 문화관광부 傘下로/이다

(8)의 ‘부속, 직속’은 단순히 후행 명사에 대해 관형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명사에 대해 서술적 용법을 지녀 補語를 가질 수 있다. 즉 ‘...에 부속되다, ...에 직속되다’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산하’도 보어를 가질 수 있지만 ‘...의 산하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여 그 의미 관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류는 단순히 名詞를 수식할 수 있다는 특성을 중시하여 관형명사의 범주에 넣기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관형명사를 뒤쪽으로 의존하는 명사의 한 부류로 정의한다면 (8)의 예는 이러한 정의에 어긋나는 예들이다. 또한 이들은 (8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으로’나 ‘이다’와의 결합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범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한 형식은 자립형식에 준하는 형식이므로 ‘準自立形式’으로 보고자 한다.

3. 語根類 漢字語와 句 構成

본절에서는 ‘어근+명사’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근류 한자어를 대상으로 이들이 과연 완전한 統辭的 構成에 참여하는 것인가 점검해 보려고 한다. 合成名詞와 句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찾기 어렵지

만, 대표적인 몇 예에 대해서만 이들이 완전한 句 構成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A+B가 단어라면 A나 B가 독자적으로 어떤 통사론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A에 加外의 문법 요소가 결합한다든가, A, B 중의 하나라도 외부 요소의 수식을 받는다든가, 외부 요소와 대등하게 접속된다든가 생략된다든가 대명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A+B'는 句로 판정된다(김창섭, 1998, 2001). 물론 여기에 의미의 合成性和 같은 의미적 기준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참고하여 이들 어근이 과연 완전한 통사적 구성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 (9) ㄱ. 零細 농민과 농가 // 零細한 농민과 농가
 ㄴ. *매우 零細 농민 // 매우 零細한 농민
 ㄷ. ?*零細 시골 농민 // 零細한 시골 농민
 ㄹ. ??零細 농민과 그런 농가 // ?零細한 농민과 그런 농가
- (10) ㄱ. ?簡易 휴게소 및 화장실
 ㄴ. 簡易 고속도로 휴게소
 ㄷ. ??簡易 휴게소 및 그런 화장실
- (11) ㄱ. 市立 도서관²과/및 병원
 ㄴ. 市立 마두동 도서관
 ㄷ. ?市立 도서관과 그런 병원

(9ㄱ)은 '영세'가 '농민과 농가'를 수식할 가능성이 있지만, (9ㄴ)은 '영세한'과 대조적으로 '영세'는 다른 성분의 수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9ㄷ)은 '영세 농민'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입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9ㄹ)은 '영세'가 代用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또 (10ㄴ)과 (11ㄱ, ㄴ)은 가능하지만 다른 예들은 부자연스럽다. '시립'의 경우는 '으로, 이다' 등과 결합이 가능하여 그만큼 自立性이 강한 예이다. '시립'과 같은 예에서도 代用이 어색하다는 것은 어근류 한자어와 명사의 결합이 완전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부류가 명사보다는 어근에 가깝다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Ⅲ. 語根類 漢字語와 接尾辭 結合 樣相

일반적으로 名詞는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고 관형사를 비롯한 수식 성분이 선행하며,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홍재성, 2001). 이 중 ‘이다’와의 결합 가능성은 ‘이다’ 앞에 명사 이외의 다른 요소도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명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도 하는데(이선웅, 2000), 본고는 명사라면 ‘이다’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다’와 결합 가능한 요소가 모두 명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다’와 결합이 불가능한 요소는 최소한 명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語根을 명사와 구별하고, 이들을 다시 ‘하다’나 ‘的’과의 결합이 가능한가 또는 이들이 생략되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또 ‘하다’나 ‘的’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예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 특성을 밝혀보려 한다. 접미사 ‘하다’나 ‘的’은 어근성을 지닌 漢字語가 국어 어휘로 사용되는 機制로 판단되며, 어근의 통사적 구성의 참여 여부는 이들의 文法的 特性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하다’ 結合이 가능한 語根

1) 統辭的 構成이 가능한 語根

‘하다’ 결합이 가능한 어근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적 특성을 보이는데, ‘하다’가 생략되어 句 構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구성은 ‘하다’가 생략되면서 후행 요소와 어떠한 統辭關係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다시 하위 구분된다.

A. ‘強力’류: ‘하다’가 생략된 어근이 후행 명사에 대해 관형사적 수식 기능과 부사적 수식 기능을 모두 보이는 부류이다.

(1) ㄱ. 強力(한) 살충제/접착제, 強力(하게) 대응하다/대처하다

ㄴ. 强硬, 緊急, 詳細, 精密, 特別, 零細, 特殊 등

B. ‘均等’류: 이 부류는 주로 서술성 명사 앞에서 ‘하다’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서술성 명사 앞에서는 ‘하다’가 생략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¹⁰⁾

(2) ㄱ. 均等(하계) 分配(하다), 均等*(한) 기회

ㄴ. 均一, 亂暴, 不當, 完璧 등

위의 예는 ‘균등 분배를 잘한다/균등 분배가 필요하다’ 등과 같이 ‘균등’이 ‘분배하다’보다 ‘분배’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C. ‘單純’류: 다음 예들은 후행 명사에 대해 주로 관형사적 수식 관계를 갖는 부류이다. ‘하다’가 생략되어서 부사적 수식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3) ㄱ. 單純(한) 노동/작업, 單純*(하계) 행동하다

ㄴ. 加工, 苛酷, 強大, 健全, 固有, 近接, 單一, 當面, 同一, 未開, 微細, 不穩, 不遇, 相當, 純粹, 弱小, 劣等, 穩健, 優良, 優秀, 危急, 有毒, 有害, 有效, 一定, 著名, 適正, 主要, 重大, 特異, 稀貴, 稀少 등

D. ‘可能’류: 다음의 예들은 어근이 서술적 의미를 지니므로 主語的 意味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4) ㄱ. 독서 可能 시간/통화 可能 지역, *可能 지역

ㄴ. 인구 過少 지역, 인구 過密 지역, 시설 落後 지역, 신경 過敏 증상

(4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성분이 생략되어서는 쓰일 수 없는 특수한

10) ‘균일’이나 ‘균등’은 非敘述 名詞 앞에서 쓰이는 사례도 발견된다. ‘균일 조명’(방이나 대상을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는 조명), ‘균등 대표제’(세력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각 구성 요소마다 균등한 수의 대표를 인정하는 제도) 등. 그러나 이는 소수에 불과할뿐더러 전문 용어로 판단되어 본고의 논의에 반례가 되는 못하는 듯하다.

부류이다.

2) 統辭的 構成이 불가능한 語根

E. ‘簡便’류: ‘하다’와 결합하여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 부류이다. 이들 어근은 다른 한자 형태소나 接辭性을 지닌 한자어와 결합할 수 있어 단어 형성의 語基가 될 수 있다. ‘하다’가 생략되어서 다른 명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갖지 못하지만 補助詞에 의한 어근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하다’가 생략되어서 문맥 중에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¹¹⁾ 이들은 통사적 구성을 형성하는 어근보다 의존성이 강한 전형적인 어근으로 볼 수 있다.¹²⁾

(5) ㄱ. 簡便도/은 하다, 簡便*(한) 복잡

ㄴ. 可憐, 刻薄, 簡單, 強韌, 健壯, 激甚, 堅固, 敬虔, 輕快, 高貴, 恭遜, 空虛, 果敢, 寬大, 巧妙, 狡猾, 貴重, 極甚, 奇異, 奇特, 難堪, 難處, 難解, 冷酷, 濃厚, 醜陋, 能熟, 斷乎, 淡泊, 唐突, 當然, 敦篤 등

2. ‘的’ 結合이 가능한 語根

‘的’은 아주 생산적인 한자어 접미사로 ‘-스럽-, -답-, 되/롭-, 하-’ 등과 배타적인 분포를 보인다. ‘的’은 形容詞化的 ‘하-’처럼 어휘적 의미가 없는 경우부터 “語基의 속성이 풍부함, 語基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에 걸치는 넓은 영역의 의미 분포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的’이 명사와 결합할 때는 적극적인 의미 변화를 보이며(작가(의) 생활≠작가적 생활), 어근과 결합할 때는 단순

11) 김창섭(1997)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從屬接續節에서 ‘하다’ 없이 語基만으로 성립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어근의 예로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가 溫暖[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의 예를 들고 있다.

12) 이 部類에 속하는 ‘단란’의 경우는 ‘단란 주점’의 예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하게 사용되는 예로 본다. ‘단란 주점’을 句로 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우며, ‘*단란 가정, *단란 가족, *단란 생활’ 등 가능한 예가 거의 없으므로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화려’가 포함된 ‘화려 강산’도 특수하게 관용화된 것으로 본다.

히 “어기에 관한 것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국제 사회는국제적 사회).

그러면 어근이 ‘的’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的’이 탈락되어 통사적 구성을 형성하는 경우와 ‘的’이 나타나지 않고는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없는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자.

1) 통사적 구성이 가능한 語根

‘的’이 결합하지 않고 통사적 구성이 가능한 경우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 어근이 결합한 모든 예가 아무 제약 없이 통사적 구성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해당 명사구의 관용성 정도에 따라 ‘的’이 생략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F. ‘國際’류¹³⁾: 어근이 後行 名詞에 대해 관형사적 수식 기능을 갖는 예이다.

(6) ㄱ. 國際 사회, 國際*(적으로) 통용되다

ㄴ. 過渡, 可變, 舉國, 巨視, 急進, 對外, 民主, 封建, 附隨, 相補, 先進, 實用, 要式, 偶發, 原始, 有機, 定期, 土着, 通俗, 學術, 後進 등

이들 예는 다른 부류와 달리 ‘的’ 결합형에서 ‘的’이 탈락되어 쓰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서 ‘的’은 소극적이거나 의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원시 동물’과 ‘원시적 동물’은 그 意味가 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G. ‘積極’류¹⁴⁾: 이 부류는 후행 명사가 서술성 명사일 때 ‘的’ 등의 접미사

13) Chao(1968:144)에서는 중국어에서도 ‘國際’나 ‘中華’가 복합어의 구성 성분으로만 쓰이는 의존형식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형태가 국어에 명사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음을 뜻한다.

14) ‘積極’의 예는 거의 부사처럼 쓰이는데, ‘極口, 大舉’와 달리 ‘적극적, 적극성’과 같이 단어 형성의 語基가 되므로 어근으로 보았다.

없이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있는 예들이다.

(7) ㄱ. 積極 검토(하다), 積極*(적) 태도

ㄴ. 決死, 大幅, 消極, 暫定, 電擊, 卽刻, 本格 등

이들은 주로 부사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的’이 결합하지 않고는 비서술성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즉 이들 어근은 피수식 성분으로 서술성 명사나 동사를 취하게 된다.

H. ‘間接’류: 관형사적 수식 기능과 부사적 수식 기능을 모두 보이는 어근이다.

(8) ㄱ. 間接 대화/회답, 間接 차용하다

ㄴ. 直接, 常習, 公式 등

2) 통사적 구성이 불가능한 語根

I. ‘猪突’류: ‘的’ 등의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고는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없는 예들이다. 어근만으로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다른 어근보다 더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9) ㄱ. 猪突的 행동, *猪突 행동

ㄴ. 理智, 恒久, 劃一, 異質, 恣意, 學究, 蓋然 등

이들 부류는 ‘的’ 등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거나 다른 한자 형태소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할 수 있지만 句 構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즉 派生語나 複合語의 구성 성분으로만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이 부류의 어근은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어근류보다 의존적인 성격을 더 많이 보여준다. 또한 ‘하다’ 결합이 가능하면서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근보다 더 의존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하다’ 결합이 가능한 어근은 ‘嚴密(은/도/) 하다’ 등과 같이 어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하다’나 ‘的’ 結合이 불가능한 語根

다음 부류는 ‘하다’나 ‘的’ 結合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한자 형태소와의 結合은 가능하다. 이들 중에도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어근과 그렇지 못한 어근이 있다.

1) 통사적 구성이 가능한 語根

J. ‘簡易’류: ‘하다’나 ‘的’과 結合할 수 없으면서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예이다.¹⁵⁾

(10) ㄱ. 簡易 휴게소/화장실, *簡易 설치하다

ㄴ. 家電, 可聽, 缺格, 敬老, 群小, 機動, 既成, 納涼, 耐久, 內務, 農林, 單科, 同好, 萬年, 法定, 師範, 傷痕, 水產, 年間, 虞犯, 遠隔, 流血, 一日, 一齊, 在宅, 終身, 中小, 月例 등

이들 예는 ‘的’이나 ‘하다’와 結合할 수 없으면서 통사적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류와 구별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簡易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같이 어휘 삽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自立性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통사적 구성이 불가능한 語根

K. ‘吸引’류: ‘하다’나 ‘的’과 結合할 수 없으면서 통사적 구성이 불가능한 예이다.

(11) ㄱ. 吸引力, *吸引 성질

ㄴ. 性善, 天動, 走光, 水洗, 隱然 등

15) 요즘 ‘太極 무늬, 太極 부채, 太極 문신, 太極 마크, 太極 전사’ 등의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의 ‘太極’은 자립명사로서의 의미(“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실체”)와 달리 쓰이면서 자립성을 잃고 ‘簡易’류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예는 다른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여서만 사용된다. 즉 복합어의 구성 성분으로만 쓰일 수 있어 매우 非生産的이며 후행 요소에 의해 분석만 가능하다.

L. ‘艱辛’류: ‘하다’와 결합할 수 없고 부사화 접미사 ‘히’와의 결합만 가능한 예들이다. 이들은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예도 별로 없고 ‘히’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 아주 의존적인 어근으로 판단된다.

(12) ㄱ. 艱辛히, *艱辛하다

ㄴ. 徐徐히, 綿綿히, 默默히, 有心히, 劃然히

IV. 語根類 漢字語와 助詞 結合의 樣相

1. 조사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앞 장에 제시한 모든 어근이 원칙적으로 조사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가 어근으로 보는 3장의 예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중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없는 부류가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부류보다 의존성이 강하다.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 중에는 어근 분리가 불가능한 I. ‘猪突’류, K. ‘吸引’류, L. ‘艱辛’류가 가장 의존적이며, 어근 분리가 가능한 E. ‘簡便’류가 다음으로 의존성을 띤다.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부류 중에는 관형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모두 보이는 A. ‘強力’류, H. ‘間接’류가 다른 부류에 비해 자립성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인다. J. ‘簡易’류는 다른 접미사와의 결합은 불가능하고 ‘간이역’ 등의 合成語만 형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류와 성격이 다르다.

2. ‘의’와 결합하는 경우

M. ‘未知’류: 조사 ‘의’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다’와의 결합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립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의’ 없이 명사 수식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不屈’류와 구별된다.¹⁶⁾

- (1) ㄱ. 未知 세계, *未知가, *未知를, *未知로, *未知에, *未知이다, 未知의
 ㄴ. 不動, 難治, 同位, 婚外, 各種, 最新 등

다른 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 결합 예 중 가장 의존적인 부류로 볼 수 있다.¹⁷⁾

3. ‘으로,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N. ‘專門’류: 조사 ‘으로’, ‘이다’와 결합 가능한 예이다.

- (2) ㄱ. 專門 분야, *專門이, *專門을, *專門에, ?*專門의, 專門으로, 專門이다
 ㄴ. 單獨, 未定, 不法, 手動, 自動, 專門, 二重, 連續, 過敏, 國營, 固形, 公立, 國定, 民選, 附屬, 私設, 先發, 月刊, 直屬, 特級 등

이 부류는 ‘的’ 파생어와 동일하게 조사 ‘으로’, ‘이다’와 결합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명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어근과 자립형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으로, 의,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O. ‘共通’류: 조사 ‘으로, 이다’ 뿐만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와도 결합하여 나타나는 예이다.

- (3) ㄱ. 共通 조건, *共通이, *共通을, *共通에, 共通으로, 共通的, 共通이다.
 ㄴ. 共同, 惡性, 別途, 最大, 無名 등

16) ‘불굴’류에 대해서는 줄고(1998:39) 참조.

17) 이들이 왜 특정 조사와의 결합만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예는 ‘으로, 의, 이다’ 등과 결합이 가능하여 그만큼 자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류이다. 조사 결합에 제약이 없을수록 語根보다는 名詞에 가깝기 때문이다.

순수한 어근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논의한 예를 依存性的의 정도에 따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依存性 ←-----→ 自立性								
통사적 구성 불가능		통사적 구성 가능			조사 결합 양상			
I. ‘猪突’류 K. ‘吸引’류 L. ‘艱辛’류	E. ‘簡便’류	서술 관형	관형사V부사	관형사^부사	‘의’	‘으로/이다’	‘으로/의/이다’	
		D. ‘可能’류	B. ‘均等’류 C. ‘單純’류 F. ‘國際’류 G. ‘積極’류	A. ‘強力’류 H. ‘間接’류 J. ‘簡易’류	M. ‘未知’류	N. ‘專門’류	O. ‘共通’류	

V. 結 論

본고는 漢字語 語根에 대한 기본 개념을 再檢討하여 語根으로 부를 수 있는 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기존의 한자어 연구에서는 自立的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격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한 예들(‘強力’, ‘國際’ 등)에 대해 특정 명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본고는 이들이 어근의 부류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하고, 한자어에서 이러한 어근은 경우에 따라 통사적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어근류 한자어가 접미사 ‘하다’나 ‘的’과 결합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또 이들이 統辭的 構成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고, 부류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근류 한자어 중에 특정 조사와의 결합을 허용하는 예들에 대해서도 그 의존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한자어는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생각된다. 그것은 한자어가 우리 言語生活에 생산적으로 사용되면서 변화하는 언어의 모습을 그만큼 빨리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는 그 특성상 流動的

인 성격을 보이는 예들이 많아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다. 어근류 한자어들도 개별 예에 따라 慣用化 정도가 달라 각 예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參 考 文 獻 ◇

- 고신숙(1987), 『조선어리론문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23~25.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539~540.
- 구소령(2000), 『국어 명사구의 관형명사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영옥(1994), 『不完全 系列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pp.87~109.
- 金倉燮(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_____ (1997), 『‘하다’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pp.257~267.
- _____ (1998),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單語와 句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1), 『합성어』,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pp.145~151.
- 盧明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4~29.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pp.71~99.
- 宋基中(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85.
- 沈在箕(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_____ (2000),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이선웅(2000),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 서울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35~57.
- 李翊燮(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이승녕박사송수기념사업위원회, pp.475~483.
- _____(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李翊燮·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任洪彬(1979), 『용언의 어근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pp.55~76.
-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정희정(2000),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채현식(2001), 『한자어 연결 구성에 대하여』, <형태론> 3권 2호, pp.241~263.
- 홍재성(2001), 『한국어의 명사 I』, <새국어생활> 11-3, pp.129~144.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30~232.
- Chao, Y. R.(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tin, S. E.(1992),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okyo: Charles E. Tuttle.

■ ABSTRACT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Roots

Noh, Myung-hee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the nature of Sino-Korean roots, and make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roots and root-like forms. We considered the ‘gang-ryeg[強力], gug-jei[國際]’ group as one of the roots. Because these are dependent, and can’t be combined with case markers. These forms can be a constituent of special syntactic constructions, but these are considered to be derived from the self-adjustment process of Sino-Korean into Korean vocabulary system.

Secondly, we classified the Sino-Korean root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y of combining with suffix ‘ha, jeg[的]’, their capability of making syntactic constructions, and their capability of being separated by particles. And we made a point that ‘mi-ji[未知], gi-jon[既存], jen-mun[專門]’ group is located between nouns and roots.